

코로나 쇼크에도 ‘깜짝 선방’... LG, 생활가전 왕좌 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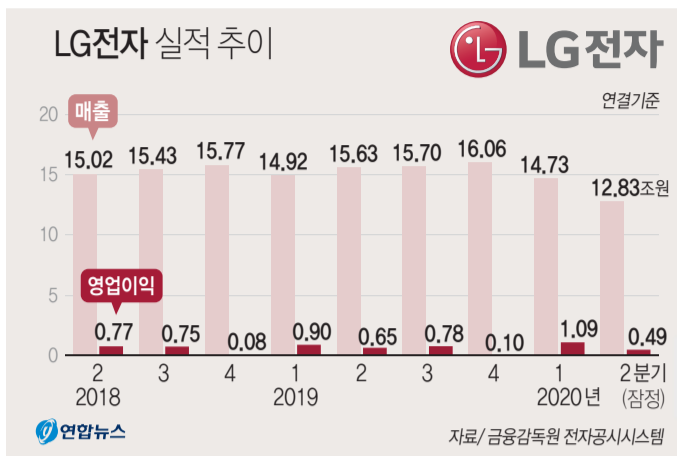
영업익 4931억, 24.4% 줄어
시장 전망치보단 성적 양호
온라인 매출 늘면서 효율 높여
신가전, 벨벳으로 적자폭 완화

LG전자가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높은 실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2분기에 매출액 12조8340억원에 영업이익 4931억원을 달성했다고 7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15조6292억원)은 17.9%, 영업이익(6523억원)은 24.4%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2015년(2441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주요 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에 따라 섀다운과 락다운 조치를 강행하면서 주요 판매량이 문을 닫은 탓이다. 아울러 해외 생산 라인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공급까지 축소되는 등 이중고에 시달렸다.



단, 시장 전망치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 2분기 실적을 매출액 13조2752억원에 영업이익 4011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는 매출액이 소폭 줄어든 대신, 영업이익을 900억원이나 더 달성한 것.

업계에서는 LG전자가 프리미엄 비중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으며, 코로나19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대신 온라인 매출 증가로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기청정기와 스타일

러, 식기세척기 등 신가전 판매량을 확대한 영향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트루 스팀'을 활용한 제품군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합한 워시타워도 출시 1달여만에 1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되면서 에어컨 판매량도 대폭 늘었다.

이에 따른 생활가전 부문 실적 추정치는 매출액이 5조원 초반대, 영업이익은 5000억원대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에도 생활가전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지켜내는 셈이다.

DB금융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TV·생활가전 등 세트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2분기 중반 이후 유통망 개장과 각국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비심리 최악 탈피 등으로 수요가 일부 회복됐다"고 분석했다.

TV부문은 매출액 2조원대 초반에 영업이익 1000억원대 초반 실적이 유력하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3조6712억

원)은 45%, 영업이익(2056억원)은 51%가 쪼그라든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도쿄올림픽 연기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대신 프리미엄 TV 판매량이 성장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폰 부문은 영업손실이 2000억 원 정도로 줄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년 동기(3130억원)와 비교하면 적자가 1000억원 이상 줄었다. 지난해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비용을 축소하는데 성공했고, 신제품인 벨벳이 인도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등 실적 덕분이다.

LG전자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에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하면서, 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1조58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성장한 상태다.

3분기부터는 가전 제품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OLED TV가 본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며 큰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 따른 수혜도 기대를 모은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장세욱 부회장 “직원 자존감이 회사 가치로”

동국제강 창립 66주년 기념 메시지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창립 66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동국제강은 7일 창립 66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본사와 각 사업장에서 간소화된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행사 방식의 기념식 대신 담당임원 주관의 장기근속상 수여식과 온라인 이벤트로 간소화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나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 모두와 회사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바탕이라고 생각한다”며 “2020년 7월 7일 오늘의 동국제강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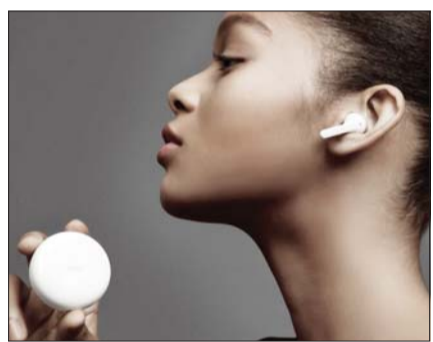
창립 66주년 기념일에 근속상을 수상한 동국제강 직원들 모습.

매년 창립기념일 당일 실시했던 동국제강의 ‘나눔지기 봉사단’ 활동은 소규모 인원이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생필품과 건강식품 등이 담긴 ‘해피박스’ 170여 개를 전달하는 언택트 봉사활동으로 진행했다.

동국제강은 유튜브에 창립기념일에 맞춰 야간 조업 중인 현장 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코로나19를 넘어서는 동국제강의 야간 현장’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동국제강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확산에도 봉항감 감산 효과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통해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성준 기자 ysw@

LG, 무선이어폰 ‘톤 프리’ 10일부터 예판

네이버 쇼핑서 단독 판매
액세서리 증정 행사 진행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



LG전자가 오디오 업체와 협력해 프리미엄 사운드를 구현한 무선 이어폰 ‘톤 프리(사진)’를 출시하고 액세서리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전자는 ‘톤 프리’가 네이버 쇼핑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 단독으로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LG베스트샵, LG전자 온라인 공식 판매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톤 프리 무선 이어폰은 명품 오디오 업체 메리디안의 신호처리 기술과 튜닝 기술 이퀄라이저를 적용했다. 새로운 이어폰 디자인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구조, 소프트웨어 성능 등까지 고려해 프리미엄 사운드를 완성했다.

LG전자는 이어폰에 부착하는 이어젤이 피부에 직접 닿는 점을 고려해 국

제표준 규격 ISO 10993에 따른 피부 접촉 관련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실리콘 소재를 채택했다.

이어폰은 단 5분만 충전해도 최대 1시간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모든 방향에서 분사되는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IPX4 등급의 방수 기능도 갖춰 힘이 많은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어폰을 보관·충전하는 케이스에 탑재한 무선 충전 기능, 소리가 나오는 홀 안쪽을 살균해 주는 UV나노(UVnano) 기능 등도 탑재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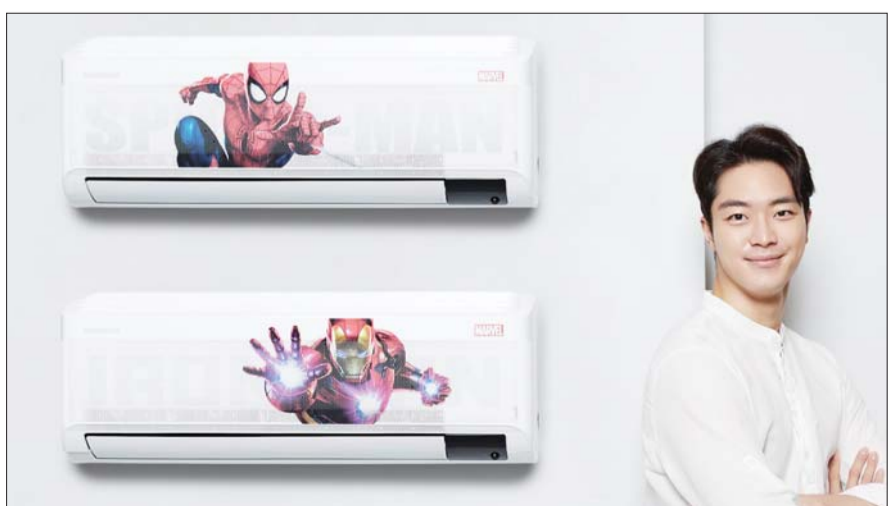
“아이언맨이 우리집 무풍에어컨 속으로 쏙~”

삼성전자, 마블·디즈니 컬렉션
토이스토리 버즈 등 한정 판매

삼성전자 벽걸이 에어컨이 겨울왕국에 이어 마블 캐릭터까지 품는다.

삼성전자는 7일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에 디즈니 인기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한 ‘디즈니 컬렉션’을 출시했다.

지난 4월 출시한 겨울왕국2 에디션에 이은 후속작으로, 겨울왕국2 올라프와 미키마우스를 비롯해 마블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토이스토리 우디와 버즈 등 패넬을 선택 가능하다. 디즈니 컬렉션은 2020대만 한정판매되며, 2020년형 무풍에어컨 벽걸이 와이드 제품(모델명AR07T9170HC)에 패넬을 갈아끼우며 사용할 수 있다.



스파이더맨과 아이언맨 패넬을 적용한 무풍에어컨.

출고가는 108만원이다. 패넬은 주문 제작방식으로 만들어져 에어컨과 별도로 순차 배송해줄 예정이다. 삼성닷컴

에서 구매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는 한샘 샴키즈 수납장도 증정한다.

NHN, 中 이커머스 거래액 1000억 돌파

상반기 역대 최대 기록

NHN의 올 상반기 중국 이커머스 사업 거래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NHN에이컴메이트는 올 상반기 누적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인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618 쇼핑축제’ 기간에만 총 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NNH에이컴메이트는 NHN 고도의 중국 기반 커머스 계열사다.

NHN에이컴메이트는 알리바바의 B2C 쇼핑플 ‘타몰’의 공식 파트너사다. 이 중 거래액 상위 3% 안에 드는 유일

한 한국 기업이다.

회사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물류 및 유통 여건 악화 등 커머스 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운데 이뤄낸 유의미한 성과”라며 “에이컴메이트가 ‘618 쇼핑축제’와 ‘언택트’를 전략적으로 공략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다.

현재 100여 개의 한국 브랜드가 NH에이컴메이트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고 있다. 화장품이 전년 동기 대비 106%, 건강기능식품과 퍼스널케어 각각 75%, 56%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인 기자 silkni@